

TV 보면서 콘텐츠 탐색... U+tv, OTT TV 플랫폼 진화

LG유플러스 기자간담회

OTT 중심 시장변화 대응 개편
고객 미디어 시청 경험 혁신
맞춤형 콘텐츠, 통합 랭킹 등
시간 단축 통해 '미타임' 극대화

LG유플러스의 새로 개편된 IPTV 서비스인 U+tv가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TV로 변신하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OTT TV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박준동 LG유플러스 컨슈머 서비스그룹장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U+tv는 놀이 플랫폼으로 OTT TV로 진화하고 OTT 사업자들과 가장 잘 협력하면서 최고의 고객 시청 경험을 제공하고 노력하겠다"며 "U+tv는 IPTV를 넘어 OTT TV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OTT TV로의 변신은 지난 9월 황현식 LG유플러스 CEO가 기자간담회에서 소개한 4대 플랫폼 중심 신사업 전략의 일환이다.

박상무는 "2010년부터 IPTV 분야에



17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 박준동 컨슈머서비스그룹장(상)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서 고객만족도 1위를 지켜왔으며, 유튜브 서비스를 출시하고 2018년에는 넷플릭스도 출시했다. 또 작년에 디즈니와 독점으로 서비스를 런칭했다"며 "이 같이 OTT 사업자들과 가장 잘 협력하면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시청 경험을 제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이석영 뉴미디어트라이브 담당은 "2049 고객의 90% 이상이 OTT 서비스를 시청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보는 매체는 TV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OTT 중심 시장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 미디어 시청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OTT 플랫폼을 선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번거로운 콘텐츠 탐색 과정, OTT별 사용자 차이, 요금 부담 등 이용자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확인하고, 수개월에 걸쳐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개편을 준비해 왔다.

박준동 상무는 "새로워진 U+tv는 원하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찾고,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OTT가 일상 속으로 깊이 자리매김한 만큼, 이제는 실시간 방송·VOD·OTT의 경계를 허무는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석영 담당은 "실시간 채널을 보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OTT 콘텐츠를 빠르게 보고 싶다는 니즈가 있는데, 화면 하단의 '런처'를 통해 OTT, VOD 등 콘텐츠를 한 곳에서 탐색하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며 "기존에는 유튜브, 넷플릭스가 보고 싶으면 일일이 접속해야 했는데, 홈화면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등 통합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급상승 채널 랭킹도 제공해 친구들이 보는 인기 콘텐츠부터 시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를 먼저 서비스하고 2023년부터 티빙과 왓치는 물론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전문 OTT인 라프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파라마운트

사의 대표 타이틀과 최신작을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독점 서비스한다.

OTT TV로 개편된 U+tv는 편리한 시청 경험, 나에게 꼭 맞는 콘텐츠 추천, 합리적인 요금이 특징이다.

'실시간 급상승 채널'에는 홈쇼핑 채널도 포함되며, 스포츠 경기, 예능, 홈쇼핑 등 시간대 별 인기있는 채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IPTV 4개, 아이들 나라 3개 등 총 7개까지 프로필을 세분화할 수 있어 TV를 공유하는 가족들도 개개인의 시청 패턴을 유지하고 나에게 꼭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런처 화면에서 자신의 IPTV 프로필을 선택하면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내가 좋아하는 채널', '최근 본 영상 이어보기', '자주 사용한 TV앱', 'VOD 맞춤 콘텐츠'가 제공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제공되는 'OTT·VOD 통합 랭킹'은 U+tv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콘텐츠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갖는, '미타임(Me-Time)'을 극대화한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주파수 할당 취소... KT·LGU+ “정부와 협의” 기아 ‘EV6·니로·스포티지’, 해외서 호평

과기부, 이통사 할당조건 이행점검 28㎒ 대역 LGU+·KT, 할당 취소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양사는 "정부와 잘 협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사과했다.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LG유플러스는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도 할당 취소 기준 점수인 30점을 겨우 넘겨 통과를 했지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28㎒ 대역은 SKT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이, LGU+·KT에는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할 바 있는데,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

㎒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이번 이행점검 결과 3.5㎒ 대역은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했다.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93.3점을 받았고 KT가 91.6점을 받았다. 반면, 28㎒ 대역에서는 3개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통 3사가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은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해 충격을 줬다. SKT만 30.5점을 받아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겨우 넘겼다. LG유플러스는 28.9점을, KT는 27.3점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고 밝혔다.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나오자 KT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LG유플러스는 18일에는 '유감이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20일에는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추가했다.

KT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28㎒를 활용한 시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주파수 실증,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투자 등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주파수 특성상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 기준을 맞추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일 "앞으로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뤄지고 남은 절차가 있으니 정부와 잘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후속 조치를 잘 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SKT 관계자는 "정부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사업 방향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호주, 아일랜드서 '올해의 차' 선정

기아 주력 차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상품성을 확인하고 있다.

기아는 최근 호주에서 발표된 '2022 카세일즈 올해의 차'에 EV6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카세일즈는 호주 자동차 리서치 및 차량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매년 현지 출시 신차를 평가해 올해의 차를 선정한다.

EV6는 심사위원 10명 중 5명에 1위로 뽑혔다. 제네시스 GV60과 BMW iX, 테슬라 모델 Y 등 전기차는 물론 폭스바겐 폴로와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등 스테디셀러 모델도 제쳤다.

카세일즈는 "EV6는 올해의 차 선정

기준인 안전, 혁신기술, 실용성, 승차감 및 핸들링, 유지비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탁월한 차량"이라며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지만, EV6는 유지 비용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3 아일랜드 올해의 차'에서도 니로와 스포티지가 소형 SUV와 중형 SUV 부문 올해의 차에 뽑혔다. 아일랜드 자동차 기자단 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신기술과 안전, 품질과 주행성능 등 항목을 중심으로 차량을 평가했다.

니로는 폭스바겐 타이고와 스키 S-크로스, 스포티지는 폭스바겐 ID.5와 벤츠 EQB 등 인기 차종을 눌렀다.

/김재용 기자



EV6

/기아

SK루브리컨츠 → SK엔무브, 사명 변경

에너지 효율화 기업으로 새 출발
TV광고 시작, 내달 1일부터 적용

SK루브리컨츠가 '에너지 효율화 기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SK엔무브(SK enmove)'로 사명을 변경한다.

20일 SK루브리컨츠는 "윤활유 등 기존 사업 영역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현재 사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파이낸셜 스토리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업'이라

는 새로운 정체성을 시장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SK엔무브'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명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알리기 위한 TV 광고 방영을 20일부터 시작했다.

'SK엔무브'라는 신규 사명의 의미는 '더 깨끗하고(Environmental)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 힘(Movement)을 만들어 가는 기업'이라는 뜻이다. ▲en

vironmental(환경적인) ▲ensuring(보장하는) ▲enabling(가능케하는)의 'en'과 'movement(움직임)'의 'move'를 조합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과 환경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내일은 향한 움직임(Environmental Movement) ▲혁신에 기반한 기술력으로 더 편리한 내일이 보장되는 움직임(Ensuring Movement) ▲인류의 가능성을 더 크게 키워 행복한 내일을 약속하는 움직임(Enabling Movement)을 만들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엔컴퍼니그룹

산학협력 프로젝트 MOA 프로그램 시상

한국엔컴퍼니그룹이 대학생들과 미래를 꿈꿨다.

한국엔컴퍼니는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 오정산업단지 모델솔루션 통합사업장에서 산학협력 프로젝트 'MOA' 프로그램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MOA는 국내의 산업디자인 전공 대

학생과 함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하이 피델리티 프로토타입' 제품으로 구현하는 시상식이다. 2016년부터 이어왔으며, 올해에는 흥익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했다.

한국엔타이어는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 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인 3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재택근무 환경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포맷 '더 퍼스트레이어'와 모듈러 인테리어 시스템 아이디어 'APOC'. 증강 현실 제품 '르네' 등이다. /김재용 기자